



발행일 2020년 9월 8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

#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 I. 코로나19(COVID-19) 대응 국내 동향

### 1 수능 원서접수 및 시험장 방역수칙

- 교육부는 9월 3일부터 18일까지 수능시험 응시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원서 접수 방안을 제시함(9.2)<sup>1)</sup>
  - 응시원서는 수험생이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의 경우 대리접수를 예외적으로 허용함<sup>2)</sup>
  - 응시원서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접수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함
- 교육부는 2020년에 실시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8.4)<sup>3)</sup>을 발표하면서 수능 시험장 방역 수칙을 일부 제시하였음
  - 정부는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 및 지역사회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방역 대책을 별도로 마련·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방역 기준에 따라 수험생 유형을 구분하여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방역 관리를 위해 시험실 당 수험생 수를 최대 24명으로 하고, 책상에 칸막이를 설치할 계획임
  -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함

- 지난 3월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학교 개학 및 학사일정 연기 방침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일정을 연기하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 조정안」을 발표함(3.31)<sup>4)</sup>
  - 수능시험을 당초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연기하고,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학생부 작성 기준일, 원서접수 기간, 전형 기간도 변경됨
- 올해 ‘수능시험 시행기본계획’(3.31)<sup>5)</sup>에 따른 수능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음
  - 수험생들은 입실부터 종료까지 최소 8시간 이상 마스크를 쓰고 같은 장소에 머물게 됨

[표 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간

시험 영역	시험 시간(소요 시간)
수험생 입실 완료 ~ 08:10까지	
(1교시) 국어	08:40 ~ 10:00(80분)
휴식 - 10:00 ~ 10:20(20분)	
(2교시) 수학	10:30 ~ 12:10(100분)
<b>중식 - 12:10 ~ 13:00(50분)</b>	
(3교시) 영어	13:10 ~ 14:20(70분)
휴식 - 14:20 ~ 14:40(20분)	
(4교시)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14:50 ~ 16:32(102분)
• 한국사(14:50 ~ 15:20, 30분)는 필수 영역이고, 탐구영역 미선택자는 대기실로 이동함	
휴식 - 16:32 ~ 16:50(18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	17:00 ~ 17:40(40분)

※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자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별첨), 2020년 3월 31일

1) 교육부 보도자료, 「올해 수능, 9월 3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시작」, 2020년 9월 2일  
 2) 대리접수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험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인 경우와 위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에 허용됨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자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2020.8.4.

4) 교육부 보도자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 조정안」, 2020년 3월 31일  
 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자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별첨), 2020년 3월 31일

## 2 수능시험 응시기회 지원 및 방역 대책

- 교육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유증상·확진 수험생의 수능 응시를 돕기 위해 별도 시험실과 병원 내 생활치료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함<sup>6)</sup>
- 그리고 대학별 고사에서도 유증상자를 위해 별도의 시험실을 마련하도록 권장하기로 함
-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유증상 등 별도 관리 수험생을 감독하게 될 교원에 대한 방역과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감독교사의 자가격리 등에 대비한 예비인력 사전 확보 등을 요청함<sup>7)</sup>
- 교육부는 9월 중순에 ‘코로나19 대비 수능시험 운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함<sup>8)</sup>
- 교육부 장관은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수능을 치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말하긴 어렵다”고 답변함. 그리고 “12월 3일에 예정된 수능시험에 대해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서 차질 없이 치르도록 준비하겠다”고 답변함
- 이에 대해 수능시험 시행일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고,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대학, 방역 당국은 보다 촘촘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학부모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일부에서는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하고 중압감이 큰 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생 건강에 지장을 주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sup>9)</sup> 수능시험 소요시간이 약 8~10시간(중식, 휴식, 대기 시간 포함) 지속되므로 수능시험 시행 일수 및 시간, 중식 운영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6) 교육부,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발표」, 2020년 8월 4일  
 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에 대한 입장」, 2020년 8월 4일  
 8) 이대희, 「유은혜 “대교협서 이변주 고3 대입 부담 완화안 발표”」, 『연합뉴스』, 2020년 9월 1일  
 9) 이주영, 「전례없는 수능 연기... 최고 입시 전문가의 ‘고3 대입’ 해법」, 『Queen』, 2020년 7월 7일

## 3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대학별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101개 대학)했다고 발표함(8.30)<sup>10)</sup>
-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의 변경 목적은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전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수험생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있음
- 대교협은 수험생 혼란 및 수험생간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변경을 지양하도록 하였고, 수험생의 지원기회 제한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전형일정 변경, 고사 종목(유형) 및 응시대상 축소 등 실기고사 관련 시행계획 변경 등을 승인함

[표 2]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역

주요내용		대학수
전형기간 조정	면접	44
	논술/적성	10
	실기	42
실기고사 종목(또는 유형) 축소		24
실기고사 대상인원 축소		13
특기자전형의 대회사적 인정범위(자격기준, 기간 등) 변경		28
지원자 풀의 변화가 없는 전형에 대해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1
수능위주전형: 교과 외 영역 기준 적용 폐지		1
자격 충족기준 등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관련 변경		27

※ 주: 2020년 8월 31일 기준, 101개 대학 변경 승인  
 ※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사항 안내」, 2020년 8월 30일

- 일부 언론은 “교육부에서 대교협이 곧 고3 대학 입시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함. 이에 대해 대교협은 “고3을 위한 대입 부담 완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남<sup>11)</sup>

이덕난 교육문화팀장직무대리, 조인식·유지연 입법조사관

1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사항 안내」, 2020년 8월 30일  
 11) 김수현, 「대교협 “고3 대입 부담 완화안 추가 발표 계획 없어”」, 『연합뉴스』, 2020년 9월 2일

#### 4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음(9.6)<sup>12)</sup>
-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최근 2주간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74.8명임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208명으로 이전 2주간(8.9~8.22)의 136.7명에 비해 71.3명 증가하였고, 수도권 외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66.8명 발생하였음
  -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의 비율은 21.3%에 달하며,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속적인 거리 두기 강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표 3] 최근 2주간 방역관리 상황 비교

	8.9~8.22	8.23~9.5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국내발생	162.1명	274.8명
수도권	136.7명	208명
해외유입	12.1명	11.5명
집단 발생a)(신규기준)	49건	52건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12.0%(292/2440)	21.3%(852/4008)
방역망 내 관리 비율b)	80% 미만	80% 미만

a) 집단발생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확진자수·감염경로불명비율은 보고일 기준  
 b)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겸 제10호 태풍 하이선 대처상황 점검회의 정례브리핑」, 2020년 9월 6일

- 다만, 지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8.30~9.5)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18.6명으로, 그 직전 한 주간의 331명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은 1~2주의 시차를 동반하는 점을 고려할 때, 8월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8월 23일부터 시작한 전국 2단계 조치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12)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겸 제10호 태풍 하이선 대처상황 점검회의 정례브리핑」, 2020년 9월 6일

#### 5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6일에 종료 예정인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8.23~)와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8.30~)를 9월 7일 0시부터 연장함<sup>13)</sup>
- 확진자 급증 추세가 억제되고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임
- 수도권 국내발생 신규환자: (8.27) 313명 → (8.30) 203명 → (9.2) 187명 → (9.4) 128명
- 하지만 수도권 신규 환자가 여전히 100명 이상 발생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임
-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 두기 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되었음
-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일) 0시부터 9월 20일(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하고,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은 9월 20일(일) 자정까지 유지됨
-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 중인 교회에 대하여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함<sup>14)</sup>
-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 0시부터 9월 13일(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 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확대함

13)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년 9월 4일

14) 수도권은 비대면 예배 실시하고,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하여 조치 중

- 지난 8월 30일 시행한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짧게 끝낼 수 있도록 1주간 실시하였음
-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환자 발생을 확실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기존 조치를 계속 시행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1주간만 연장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다음날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조치 등 기존 조치들은 9월 13일(일) 자정까지 유지됨
- 이번 아니라, 카페, 직업훈련기관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됨

-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됨
  - 또한,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하여 원격수업만 허용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확실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김은진 입법조사관

『현안 브리핑』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정현안의 국내·외 동향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표 4] 주요 국가 확진환자 및 사망자 현황비교(9월 7일, 09시 기준)

국가	감염자		사망자		사망률
	인원	발생률*	인원	발생률*	
미국	6,274,388	1906.53	188,909	57.4	3.01
브라질	4,137,521	1947.99	126,650	59.6	3.06
인도	4,113,811	300.56	70,626	5.2	1.72
러시아	1,025,505	712.65	17,820	12.4	1.74
페루	683,702	2078.12	29,687	90.2	4.34
콜롬비아	650,062	1305.35	20,888	41.9	3.21
남아프리카공화국	636,884	1096.19	14,779	25.4	2.32
멕시코	634,023	479.23	67,558	51.1	10.66
스페인	498,989	1075.41	29,418	63.4	5.9
아르헨티나	461,882	1024.13	9,685	21.5	2.1

\* 인구 10만 명당(국가별 총 인구수: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 한국: 감염자-인원 21,296명, 발생률 41.1명, 사망자-인원 336명, 발생률 0.6명, 사망률-1.58

※ 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외발생현황」(최종 검색일: 2020년 9월 7일)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4&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4&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